
“중소기업 경영상황 파악 설문조사” 조사결과

2013. 03

목 차

제1장. 조사 개요	2
1. 조사의 배경	3
2. 조사의 개요	3
3. 조사의 내용	3
4. 응답기업 특성	4
제2장. 조사 결과	5
1. 세계경제 인식	6
2. 전반적인 경기(景氣) 인식	7
3. 향후 경기(景氣) 전망	8
3-1. 향후 경기(景氣) 호전 시기	9
4. 전반적인 회사 경영상황	10
4-1. 최근 가장 큰 경영애로	11
5. 매출 변화	13
5-1. 매출감소 지속기간	14
6. 환율하락으로 인한 매출(수요) 감소	15
7. 투자 여건	16
8. 신규 투자 계획	17
9. 금융권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 체감 여부	18
10. 동반성장 문화 개선	19
11. 납품단가 변동	20
11-1. 납품단가 협상과정	21
12. 자구노력 여부	22
12-1. 자구노력 방법	23
13. 새정부 경제팀에 바라는 점	25

결과 요약

- 중소기업 10개중 8개사(82.8%)는 “세계경제를 글로벌 위기상황”으로 인식, 최근 “전반적인 경기가 나쁘다”(85.6%)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반면,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 “경기가 호전될 것”(49.4%)이라는 응답이 “악화될 것”(40.7%)이라는 응답에 비해 소폭 높게 나타난 가운데
 - 경기 호전시기는 “금년 하반기”(48.1%)가 가장 많았고, 내년 상반기(25.7%), 금년 상반기(11.9%), 내년 하반기(11.0%) 순으로 내다봄
-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어렵다”(52.5%)
 - 실제로 “매출액이 감소추세”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42.6% 로, 이중 “매출액 감소가 6개월(27.1%), 1년 이상(32.0%) 지속됐다”는 응답은 59.1%
 - 특히, 해외수출업체의 경우, 최근 “환율하락으로 인해 매출(수요)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67.9%에 달함
- 중소기업의 최근 투자 여건은 대체로 ‘어렵다’(73.6%)고 했지만, “올해 신규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10곳 중 3곳(31.8%)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체들이 새정부의 경제팀에 가장 바라는 것은 “중소기업 살리기”(72.2%) 그 다음으로 “경기활성화(경제성장)”(50.1%), “환율, 물가 등 금융시장 안정”(25.6%) 등의 순으로 응답
- 최근 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발표에 대해, 실제로 이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23.5%에 불과
-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우,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문화가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36.6%
 - 올해 납품단가 협상과정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 수월해졌다”는 응답이 34.6%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품단가 인상”은 5.8%에 불과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의 배경

- 최근 중소기업계 동향과 경영 여건을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바람직한 중소기업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의 개요

조사 항목	내용
1) 조사 대상	중소제조업 425개사
2)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
3)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4.75\%P$
4) 조사기간	2013. 2. 22~2. 28
5) 조사기관	나이스알앤씨(주)

3 조사의 내용

- 업체명
 - 업종
 - 업력
 - 종사자수
 - 주거래치
-
- 전반적인 체감경기
-
- 회사 경영상황
 - 매출변화
 - 환율 영향
 - 투자계획
-
- 동반성장
 - 동반성장 문화 개선여부, 납품단가 변동
 -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강화 노력 체감여부
-
- 자구노력 여부
 - 자구노력 방안
-
- 새정부 경제팀에 바라는 사항

4 응답기업 특성

구분		업체수 (개)	비중 (%)
전체		(425)	100.0
종사자수	50명 미만	(236)	55.5
	50명 이상	(189)	44.5
업력	10년 미만	(91)	21.4
	10년 이상	(334)	78.6
주거래처	대기업	(191)	44.9
	중소기업	(78)	18.4
	해외(수출)	(156)	36.7

제2장. 조사결과

1 세계경제 인식

- 중소기업제조업의 82.8%는 “세계경제가 글로벌 위기 상황”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세계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10개중 8개사는 글로벌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1〉 세계경제 위기 인식 정도 (단위: %)



- 주거래처가 대기업인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우, 세계경제를 글로벌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77.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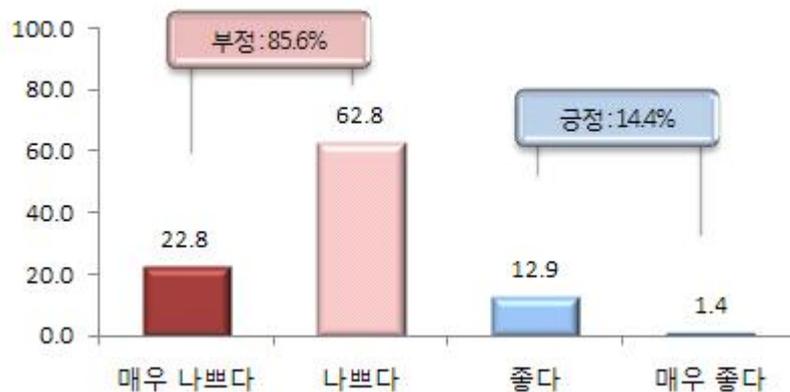
〈표 1〉 세계경제 위기 인식 정도 (단위: %)

구분		업체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아니다 (①+②)	그렇다 (③+④)
전체		(425)	1.6	15.5	68.9	13.9	17.2	82.8
종사자수	50명 미만	(236)	2.1	16.5	65.7	15.7	18.6	81.4
	50명 이상	(189)	1.1	14.3	73.0	11.6	15.3	84.7
업력	10년 미만	(91)	2.2	15.4	67.0	15.4	17.6	82.4
	10년 이상	(334)	1.5	15.6	69.5	13.5	17.1	82.9
주거래처	대기업	(191)	3.7	18.8	65.4	12.0	22.5	77.5
	중소기업	(78)	0.0	14.1	73.1	12.8	14.1	85.9
	해외(수출)	(156)	0.0	12.2	71.2	16.7	12.2	87.8

2 전반적인 경기(景氣) 인식

- 최근 전반적 내수경기에 대해 중소기업의 85.6%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쁘다’는 응답이 62.8%, ‘매우 나쁘다’는 응답이 22.8%로 부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에서 전반적으로 내수경기를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보임

〈그림 2〉 전반적인 경기 인식 정도 (단위: %)



-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50명 미만의 소기업(86.4%)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가 어렵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고,
 - 주거래처가 중소기업인 경우(87.2%)에도 경기를 어렵게 느끼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2〉 전반적인 경기 인식 정도 (단위: %)

구분	업체수	매우 나쁘다	나쁘다	좋다	매우 좋다	나쁘다 (①+②)	좋다 (③+④)	
전체	(425)	22.8	62.8	12.9	1.4	85.6	14.4	
종사자수	50명 미만	(236)	25.8	60.6	11.4	2.1	86.4	13.6
	50명 이상	(189)	19.0	65.6	14.8	0.5	84.7	15.3
업력	10년 미만	(91)	28.6	57.1	13.2	1.1	85.7	14.3
	10년 이상	(334)	21.3	64.4	12.9	1.5	85.6	14.4
주거래처	대기업	(191)	22.5	62.8	12.6	2.1	85.3	14.7
	중소기업	(78)	29.5	57.7	12.8	0.0	87.2	12.8
	해외(수출)	(156)	19.9	65.4	13.5	1.3	85.3	14.7

3 향후 경기(景氣) 전망

- 향후 경기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응답 중소기업의 절반정도(49.4%)가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했으며,
 - 반면, 향후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도 40.7%로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3〉 향후 경기 전망 (단위: %)



- 주거래처별로 살펴보면, 해외(수출)기업인 경우, 향후 경기에 대해 낙관적인 비율 (51.9%)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 향후 경기 전망 (단위: %)

구분		업체수	악화될 것이다	호전될 것이다	모르겠다
전체		(425)	40.7	49.4	9.9
종사자수	50명 미만	(236)	39.4	50.8	9.7
	50명 이상	(189)	42.3	47.6	10.1
업력	10년 미만	(91)	37.4	51.6	11.0
	10년 이상	(334)	41.6	48.8	9.6
주거래처	대기업	(191)	40.8	48.7	10.5
	중소기업	(78)	43.6	46.2	10.3
	해외(수출)	(156)	39.1	51.9	9.0

3-1 향후 경기(景氣) 호전 시기

- 향후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의 48.1%는 경기호전 시기를 ‘금년 하반기’부터라고 예상하였으며,
 - 그 다음으로, ‘내년 상반기’가 25.7%로 많았고, 이후 ‘금년 상반기’(11.9%), ‘내년 하반기’(11.0%) 순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4〉 향후 경기호전 시기 (단위:%)



-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50명 미만의 소기업에서는 절반에 해당하는 기업(50.0%)이 ‘금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고,
 - 주거래처별로 보면, 해외(수출)기업의 경우 ‘금년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56.8%로 가장 높았고,
 - 대기업 협력업체와 중소기업간 거래업체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부터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3.3%, 30.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4〉 향후 경기호전 시기 (단위: %)

구분		업체수	금년 상반기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	모르겠음
전체		(210)	11.9	48.1	25.7	11.0	3.3
종사자수	50명 미만	(120)	14.2	50.0	22.5	10.0	3.3
	50명 이상	(90)	8.9	45.6	30.0	12.2	3.3
업력	10년 미만	(47)	12.8	46.8	27.7	10.6	2.1
	10년 이상	(163)	11.7	48.5	25.2	11.0	3.7
주거래처	대기업	(93)	14.0	41.9	33.3	9.7	1.1
	중소기업	(36)	13.9	44.4	30.6	5.6	5.6
	해외(수출)	(81)	8.6	56.8	14.8	14.8	4.9

4 전반적인 회사 경영상황

- 최근 전반적인 회사 경영상황에 대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인 52.5%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어렵다”고 응답함
 - 전반적인 경영상황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응답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어렵다”는 응답이 37.4%,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응답도 15.1%를 차지해 응답 중소기업의 절반이상이 최근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5〉 전반적인 회사 경영상황 (단위: %)



- 주거래처별로 살펴보면, 해외(수출)기업의 경우, 경영상황이 괜찮다는 응답이 52.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간 거래업체는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비율이 59.0%로 높게 나타남

〈표 5〉 전반적인 회사 경영상황 (단위: %)

구분		업체수	글로벌 금융위기 보다 더 어렵다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어렵다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니다	매우 양호하다	어렵다 (①+②)	괜찮다 (③+④)
전체		(425)	15.1	37.4	41.4	6.1	52.5	47.5
종사자수	50명 미만	(236)	17.8	36.0	41.1	5.1	53.8	46.2
	50명 이상	(189)	11.6	39.2	41.8	7.4	50.8	49.2
업력	10년 미만	(91)	15.4	36.3	41.8	6.6	51.6	48.4
	10년 이상	(334)	15.0	37.7	41.3	6.0	52.7	47.3
주거래처	대기업	(191)	15.2	38.7	39.3	6.8	53.9	46.1
	중소기업	(78)	12.8	46.2	33.3	7.7	59.0	41.0
	해외(수출)	(156)	16.0	31.4	48.1	4.5	47.4	52.6

4-1 최근 가장 큰 경영애로

-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상 가장 큰 어려움은 ‘내수(판매)부진’(29.9%), ‘환율변동’(28.2%), ‘원자재 가격변동’(28.0%) 등이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으며,
- 그 다음으로 ‘자금조달 애로’(17.6%), ‘해외수요(판매) 부진’(17.2%), ‘인력난’(17.2%)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응답기업 전체가 공통적으로 크게 느끼는 어려움 보다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애로사항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그림 6〉 최근 가장 큰 경영애로 (*복수응답) (단위: %)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0명 미만의 소기업은 ‘원자재 가격변동’(32.2%)에 대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50명 이상의 중기업은 ‘내수(판매)부진’(31.2%) 외에 ‘인력난’에 대해서도 22.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업력별로 살펴보면, 10년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애로’가 23.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주거래처별로 살펴보면, 해외(수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환율 변동’이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내수(판매)부진’(36.1%)과 ‘원자재 가격 변동’(31.4%)이 경영 어려움으로 조사됨

<표 6> 최근 가장 큰 경영애로 (*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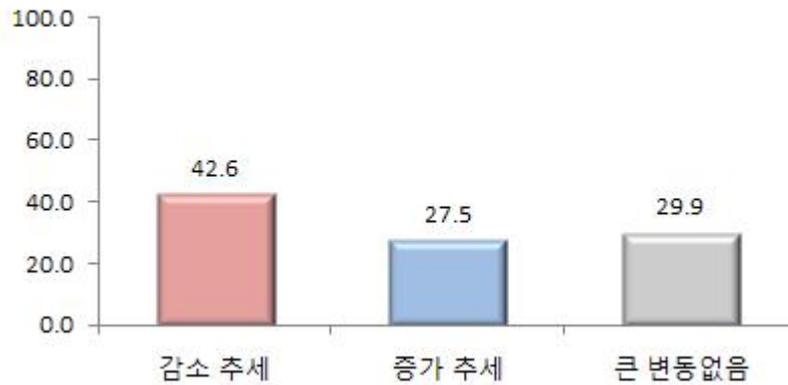
구분		업체수	내수 (판매) 부진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변동	자금 조달 애로	해외 수요 부진	인력난	제품 단가 하락	인건비 부담
전체		(425)	29.9	28.2	28.0	17.6	17.2	17.2	16.2	12.2
종사자수	50명 미만	(236)	28.8	28.8	32.2	19.1	16.5	12.7	17.8	10.2
	50명 이상	(189)	31.2	27.5	22.8	15.9	18.0	22.8	14.3	14.8
업력	10년 미만	(91)	27.5	20.9	23.1	23.1	18.7	20.9	18.7	14.3
	10년 이상	(334)	30.5	30.2	29.3	16.2	16.8	16.2	15.6	11.7
주거래처	대기업	(191)	36.1	15.7	31.4	18.3	8.4	23.0	17.8	15.2
	중소기업	(78)	43.6	6.4	20.5	16.7	14.1	19.2	16.7	12.8
	해외(수출)	(156)	15.4	54.5	27.6	17.3	29.5	9.0	14.1	8.3

구분		업체수	동종 업계 과다 경쟁	운영 자금 부족	대금 회수 곤란	대기업 불공정 행위	물가 변동	제품 (서비스) 경쟁력 하락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425)	9.4	7.3	4.7	3.3	2.4	1.6	0.2	0.7
종사자수	50명 미만	(236)	9.3	8.9	5.5	2.5	1.7	1.7	0.4	0.4
	50명 이상	(189)	9.5	5.3	3.7	4.2	3.2	1.6	0.0	1.1
업력	10년 미만	(91)	9.9	8.8	2.2	1.1	3.3	1.1	1.1	1.1
	10년 이상	(334)	9.3	6.9	5.4	3.9	2.1	1.8	0.0	0.6
주거래처	대기업	(191)	7.9	6.3	4.2	4.7	3.1	2.1	0.0	1.6
	중소기업	(78)	14.1	12.8	7.7	1.3	2.6	2.6	0.0	0.0
	해외(수출)	(156)	9.0	5.8	3.8	2.6	1.3	0.6	0.6	0.0

5 매출 변화

- 최근 매출액 변화에 대해 물은 결과, 조사응답 중소기업의 42.6%가 매출액이 ‘감소 추세’라고 응답함

〈그림 7〉 매출액 변화 (단위:%)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0명 미만의 소기업에서 매출액이 ‘감소 추세’라는 응답이 47.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 주거래처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간 거래업체의 경우, 매출액 ‘감소 추세’라는 응답이 46.2%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표 7〉 매출액 변화 (단위:%)

구분		업체수	감소 추세	증가 추세	큰 변동 없음
전체		(425)	42.6	27.5	29.9
종사자수	50명 미만	(236)	47.9	24.2	28.0
	50명 이상	(189)	36.0	31.7	32.3
업력	10년 미만	(91)	38.5	36.3	25.3
	10년 이상	(334)	43.7	25.1	31.1
주거래처	대기업	(191)	45.5	26.7	27.7
	중소기업	(78)	46.2	21.8	32.1
	해외(수출)	(156)	37.2	31.4	31.4

5-1 매출감소 지속기간

- 최근 매출액이 감소 추세라고 응답한 기업 중에서 매출액 감소가 6개월(27.1%), 1년 이상(32.0%) 지속됐다는 응답은 59.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그림 8〉 매출액 감소세 지속기간 (단위:%)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0명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 ‘1년 이상’ 매출액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비율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50명 이상의 중기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이라는 응답이 36.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8〉 매출액 감소세 지속기간 (단위:%)

구분		업체수	약 1개월	약 2~3개월	약 4~5개월	약 6개월 이상	약 1년 이상
전체		(181)	2.2	24.3	14.4	27.1	32.0
종사자수	50명 미만	(113)	0.0	25.7	14.2	21.2	38.9
	50명 이상	(68)	5.9	22.1	14.7	36.8	20.6
업력	10년 미만	(35)	5.7	11.4	22.9	22.9	37.1
	10년 이상	(146)	1.4	27.4	12.3	28.1	30.8
주 거래처	대기업	(87)	3.4	27.6	13.8	29.9	25.3
	중소기업	(36)	0.0	19.4	13.9	19.4	47.2
	해외(수출)	(58)	1.7	22.4	15.5	27.6	32.8

*응답base: 매출액이 감소 추세인 기업

6 환율하락으로 인한 매출(수요) 감소

- 중소기업의 43.1%는 최근 “환율하락으로 인해 매출(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해외(수출)기업인 경우, 최근 환율하락으로 인해 매출(수요)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67.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우에도 10곳 중 3곳(30.4%)은 직간접적 영향으로 인해 최근 환율하락으로 인한 매출(수요)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9〉 환율하락으로 인한 매출(수요) 감소 여부 (단위: %)



〈표 9〉 환율하락으로 인한 매출(수요) 감소여부 (단위: %)

구분		업체수	매출(수요) 감소하지 않음	매출(수요) 감소함
전체		(425)	56.9	43.1
종사자수	50명 미만	(236)	59.7	40.3
	50명 이상	(189)	53.4	46.6
업력	10년 미만	(91)	67.0	33.0
	10년 이상	(334)	54.2	45.8
주거래처	대기업	(191)	69.6	30.4
	중소기업	(78)	75.6	24.4
	해외(수출)	(156)	32.1	67.9

7 투자 여건

- 중소기업의 최근 투자 여건은 ‘어렵다’라는 응답이 73.6%로 높게 나타나 부정적인 것으로 보임

〈그림 10〉 최근 투자 여건 (단위: %)



-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50명 미만의 소기업은 최근 투자 여건에 대해서 ‘매우 어렵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2.7%로, 50인 이상 중기업(5.8%)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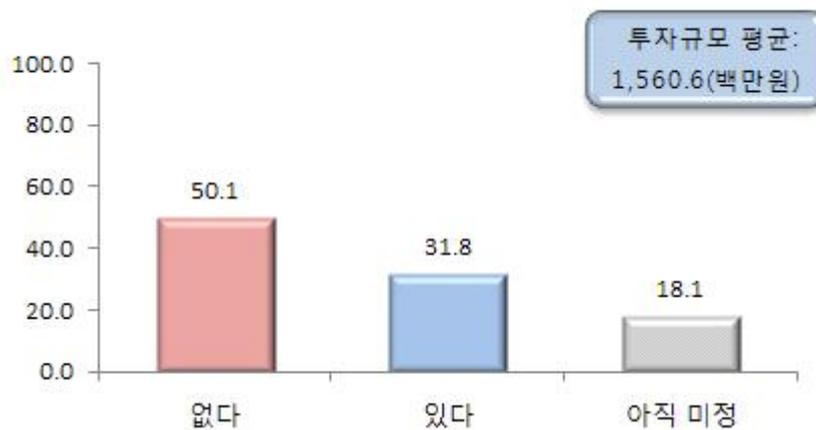
〈표 10〉 최근 투자 여건 (단위: %)

구분		업체수	매우 어렵다	어렵다	좋다	매우 좋다	어렵다 (①+②)	좋다 (③+④)
전체		(425)	9.6	64.0	25.9	0.5	73.6	26.4
종사자수	50명 미만	(236)	12.7	62.3	24.6	0.4	75.0	25.0
	50명 이상	(189)	5.8	66.1	27.5	0.5	72.0	28.0
업력	10년 미만	(91)	9.9	62.6	27.5	0.0	72.5	27.5
	10년 이상	(334)	9.6	64.4	25.4	0.6	74.0	26.0
주거래처	대기업	(191)	9.4	65.4	25.1	0.0	74.9	25.1
	중소기업	(78)	7.7	61.5	30.8	0.0	69.2	30.8
	해외(수출)	(156)	10.9	63.5	24.4	1.3	74.4	25.6

8 신규 투자 계획

- 중소기업 10곳 중 3곳(31.8%)은 최근 투자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전체 응답기업의 신규 투자규모는 평균 15억 6천만원으로 조사됨

〈그림 11〉 신규 투자 계획 (단위: %)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0명 이상의 중기업의 34.4%가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평균 신규투자 규모는 약 32억 7천만원으로 50명 미만의 소기업 대비 현저히 높게 나타남
- 해외(수출)기업의 경우, 33.3%가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있으며, 평균 신규 투자 계획 규모는 약 23억 2천만원으로 나타난 반면,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31.9%가 올해 신규투자 계획이 있다고 했으나 신규 투자계획 규모는 약 8억 9천만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표 11〉 신규투자 계획 (단위: %)

구분	업체수	없다	있다	아직 미정	투자규모 평균(백만원)	
전체	(425)	50.1	31.8	18.1	1,560.60	
종사자수	50명 미만	(236)	54.2	29.7	16.1	263.13
	50명 이상	(189)	45.0	34.4	20.6	3,273.27
업력	10년 미만	(91)	50.5	35.2	14.3	624.68
	10년 이상	(334)	50.0	30.8	19.2	1,830.98
주거래처	대기업	(191)	52.9	31.9	15.2	886.64
	중소기업	(78)	56.4	28.2	15.4	1,840.61
	해외(수출)	(156)	43.6	33.3	23.1	2,316.46

9 금융권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 체감 여부

- 최근 금융권에서는 대출확대, 금리인하 등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 실제로 이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23.5%로 나타남

〈그림 12〉 금융권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 노력 체감 여부 (단위:%)



- 중소기업 10개곳 중 최근 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노력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기업은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 업력이 10년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권의 노력을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이 31.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12〉 금융권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 노력에 대한 체감 여부 (단위:%)

구분		업체수	체감하고 있지 않다	체감하고 있다
전체		(425)	76.5	23.5
종사자수	50명 미만	(236)	79.2	20.8
	50명 이상	(189)	73.0	27.0
업력	10년 미만	(91)	68.1	31.9
	10년 이상	(334)	78.7	21.3
주거래처	대기업	(191)	75.4	24.6
	중소기업	(78)	80.8	19.2
	해외(수출)	(156)	75.6	24.4

10 동반성장 문화 개선

- 대기업과 주로 거래하는 대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동반성장 문화 개선 여부를 물은 결과,
 - 지난 2010. 9월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동반성장 문화가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36.6%로 나타남

〈그림 13〉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문화 개선 여부 (단위: %)



-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0명 이상의 중기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동반성장 문화가 개선되었다고 보는 긍정적 응답비율이 44.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50명 미만의 소기업에서는 28.6%로 다소 낮게 나타남

〈표 13〉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문화 개선 여부 (단위: %)

구분		업체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아니다 (①+②)	그렇다 (③+④)
전체		(191)	16.8	46.6	35.6	1.0	63.4	36.6
종사자수	50명 미만	(91)	22.0	49.5	27.5	1.1	71.4	28.6
	50명 이상	(100)	12.0	44.0	43.0	1.0	56.0	44.0
업력	10년 미만	(45)	17.8	44.4	37.8	0.0	62.2	37.8
	10년 이상	(146)	16.4	47.3	34.9	1.4	63.7	36.3

*응답base: 대기업 협력업체

11 납품단가 변동

- 대기업 협력업체의 올해 납품단가가 지난해에 비해 “인상”되었다는 응답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작년 대비 납품단가가 “인하”되었다는 업체는 10곳 중 3곳(30.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과 “변동없다”는 응답은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아직 납품단가가 결정되지 않은 업체 비율은 19.9%로 조사됨

〈그림 14〉 작년 대비 납품단가 변동 (단위:%)



- 업력별로 살펴보면, 업력 10년 미만의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우, 납품단가 “인상” 비율이 2.2%로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14〉 작년 대비 납품단가 변동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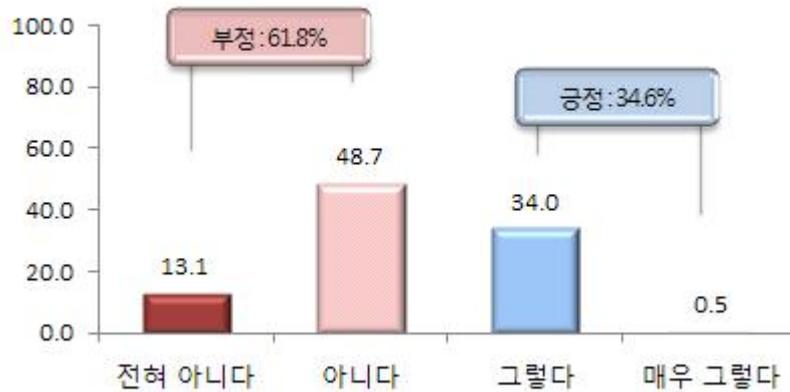
구분		업체수	납품단가 인하	변동없음	납품단가 인상	아직 미정
전체		(191)	30.4	44.0	5.8	19.9
종사자수	50명 미만	(91)	25.3	57.1	5.5	12.1
	50명 이상	(100)	35.0	32.0	6.0	27.0
업력	10년 미만	(45)	33.3	53.3	2.2	11.1
	10년 이상	(146)	29.5	41.1	6.8	22.6

*응답base: 대기업 협력업체

11-1 납품단가 협상과정

- 올해 납품단가 협상과정에 대해 대기업 협력업체의 34.6%는 “작년에 비해 수월해졌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5〉 작년 대비 납품단가 협상과정이 수월한 정도 (단위: %)



〈표 15〉 작년 대비 납품단가 협상과정이 수월한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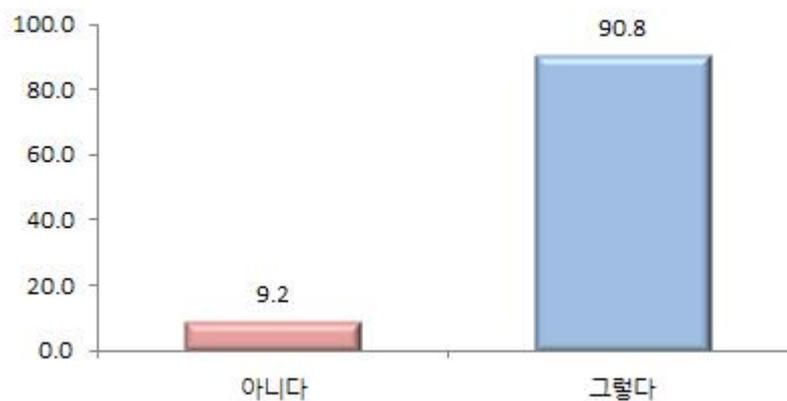
구분	업체수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무응답	아니다 (①+②)	그렇다 (③+④)	
전체	(191)	13.1	48.7	34.0	0.5	3.7	61.8	34.6	
종사자수	50명 미만	(91)	12.1	47.3	38.5	0.0	2.2	59.3	38.5
	50명 이상	(100)	14.0	50.0	30.0	1.0	5.0	64.0	31.0
업력	10년 미만	(45)	17.8	44.4	37.8	0.0	0.0	62.2	37.8
	10년 이상	(146)	11.6	50.0	32.9	0.7	4.8	61.6	33.6

*응답base: 대기업 협력업체

12 자구노력 여부

- 중소기업의 90.8%는 최근 대내외적 어려운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현재의 기업 경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16〉 대내외적 경영상황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여부(단위: %)



- 업력별로 살펴보면, 업력 10년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비율이 94.5%로, 업력 10년 이상의 기업(89.8%) 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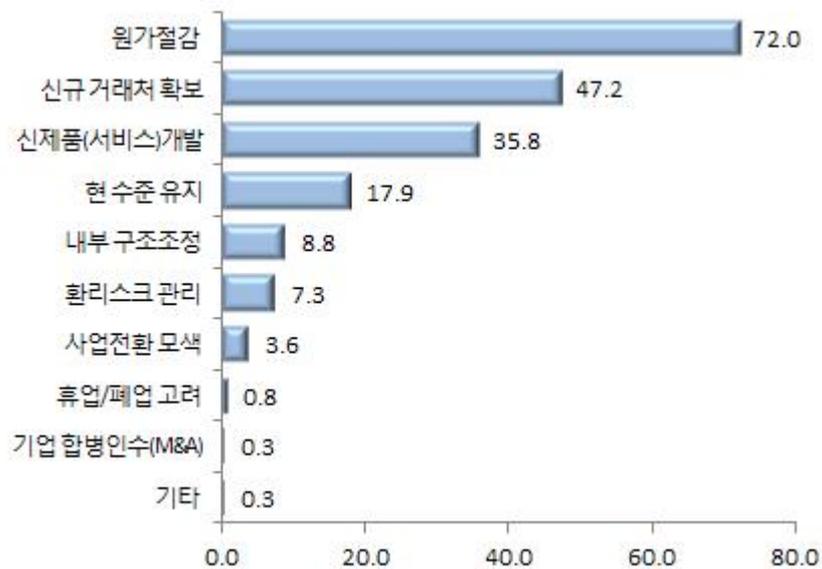
〈표 16〉 대내외적 경영상황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여부(단위: %)

구분		업체수	아니다	자구노력 하고 있다
전체		(425)	9.2	90.8
종사자수	50명 미만	(236)	8.9	91.1
	50명 이상	(189)	9.5	90.5
업력	10년 미만	(91)	5.5	94.5
	10년 이상	(334)	10.2	89.8
주거래처	대기업	(191)	12.6	87.4
	중소기업	(78)	5.1	94.9
	해외(수출)	(156)	7.1	92.9

12-1 자구노력 방법

-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 기업의 대응방법으로는 ‘원가 절감’이 72.0%로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는 ‘신규 거래처 확보’ 47.2%, ‘신제품(서비스)개발’ 3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7〉 대내외적 경영상황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대응방법 (*복수응답) (단위: %)



-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원가절감’(80.8%) 노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부 구조조정’으로 대응한다는 응답 비율이 13.8%로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 해외(수출)기업의 경우에는 ‘환리스크 관리’를 통해 대응한다는 비율이 13.8%로 비교적 높게 조사됨

〈표 17〉 대내외적 경영상황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대응방법 (*복수응답) (단위: %)

구분		업체수	원가절감	신규 거래처 확보	신제품 (서비스)개발	현 수준 유지	내부 구조조정
전체		(425)	72.0	47.2	35.8	17.9	8.8
종사자수	50명 미만	(236)	66.0	49.8	36.3	20.0	7.4
	50명 이상	(189)	79.5	43.9	35.1	15.2	10.5
업력	10년 미만	(91)	66.3	48.8	34.9	22.1	5.8
	10년 이상	(334)	73.7	46.7	36.0	16.7	9.7
주거래처	대기업	(191)	80.8	42.5	28.1	18.0	13.8
	중소기업	(78)	71.6	47.3	39.2	23.0	8.1
	해외(수출)	(156)	62.1	52.4	42.8	15.2	3.4

구분		업체수	환리스크 관리	사업전환 모색	휴업/폐업 고려	기업 합병인수 (M&A)	기타
전체		(425)	7.3	3.6	0.8	0.3	0.3
종사자수	50명 미만	(236)	7.4	3.7	1.4	0.5	0.5
	50명 이상	(189)	7.0	3.5	0.0	0.0	0.0
업력	10년 미만	(91)	5.8	7.0	0.0	0.0	0.0
	10년 이상	(334)	7.7	2.7	1.0	0.3	0.3
주거래처	대기업	(191)	4.2	3.6	0.0	0.6	0.0
	중소기업	(78)	1.4	4.1	1.4	0.0	0.0
	해외(수출)	(156)	13.8	3.4	1.4	0.0	0.7

13 새정부 경제팀에 바라는 점

- 새정부 출범(2. 25)을 맞아 새정부 경제팀에 바라는 점은 ‘중소기업 살리기’가 72.2%로 가장 높아 1순위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경기 활성화(경제성장)’ 50.1%, ‘환율, 물가 등 금융시장 안정’ 2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8〉 새정부 경제팀에 가장 바라는 점 (*복수응답) (단위: %)



〈표 18〉 새정부 경제팀에 가장 바라는 점 (*복수응답) (단위: %)

구분		업체수	중소기업 살리기	경기 활성화 (경제 성장)	금융시장 안정 (환율, 물가)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425)	72.2	50.1	25.6	13.9	0.2	0.5
종사자수	50명 미만	(236)	73.3	50.4	26.3	14.4	0.0	0.4
	50명 이상	(189)	70.9	49.7	24.9	13.2	0.5	0.5
업력	10년 미만	(91)	71.4	49.5	20.9	15.4	0.0	0.0
	10년 이상	(334)	72.5	50.3	26.9	13.5	0.3	0.6
주거래처	대기업	(191)	74.3	52.9	16.8	14.7	0.5	0.5
	중소기업	(78)	67.9	60.3	28.2	11.5	0.0	1.3
	해외(수출)	(156)	71.8	41.7	35.3	14.1	0.0	0.0

/끝.